



코로나19의 손해보험 종목별 영향¹⁾

홍민지 연구원

현재 코로나19가 여러 분기에 걸쳐 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손해보험회사 또한 직원의 원격근무, 저금리, 성장률 측면에서 사업의 연속성 및 운영상 위기에 직면함. 사이버보험, 의료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는 증가하고, 항공기·선박, 자동차, 여행자 보험시장은 침체될 것으로 전망됨. 손해보험회사는 원격근무 및 디지털 환경을 정비하고, 보험증권의 보장범위 및 보험료를 조정하는 한편 미래의 리스크에 대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

■ 현재 코로나19가 여러 분기에 걸쳐 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손해보험회사 또한 직원의 원격근무, 저금리, 성장률 측면에서 사업의 연속성 및 운영상 위기에 직면함

- 컨설팅회사 Bain & Company는 2020년 5월 초 현재 상황별 위기 보고(Situational Threat Report Index: 이하, 'SITREP'라 함)지수를 레벨²⁾로 파악하였으며, 중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할 것을 권장함
-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되는 장단기 위협요인에는 직원의 원격근무, 저금리, 성장률 등이 있음
 - 코로나19로 인해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원격근무를 하게 되었으나,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임
 - 저금리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면 Long-tail 보험³⁾ 종목의 손해율이 악화되고, 일부 보험 상품은 경제성이 없어 인수하지 않게 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
 -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손해보험시장의 성장을 저하시킬 것이며, 개인보험보다는 상업보험이 경기 사이클에 더 취약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

1) McKinsey(2020. 4), "Coronavirus response: Short- and long-term actions for P&C insurers"의 내용을 재정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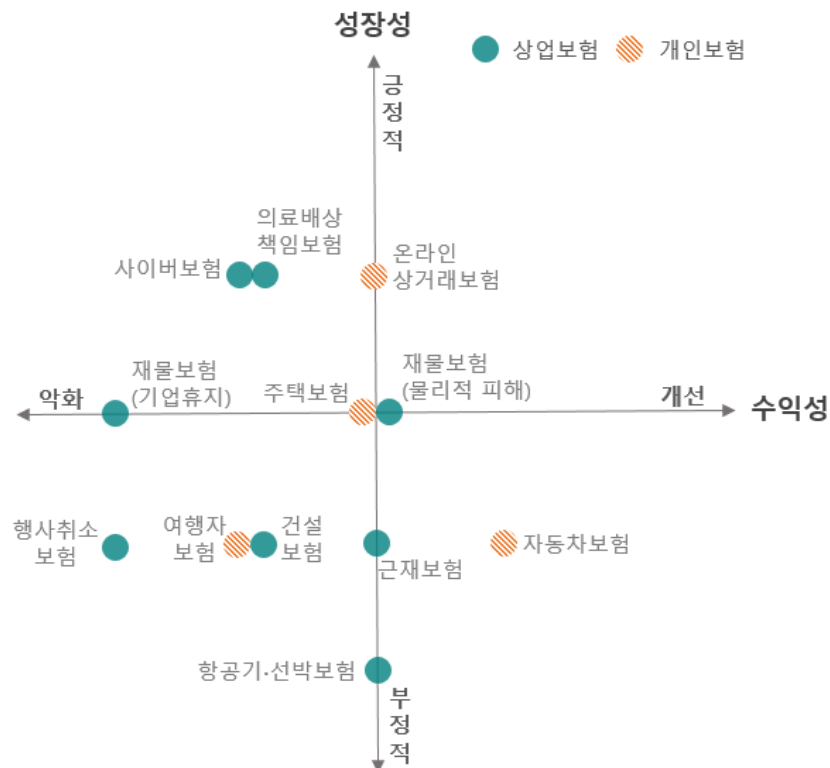
2) <https://www.bain.com/insights/tracking-the-global-impact-of-the-coronavirus-outbreak-snap-chart/>(검색일: 2020년 5월 10일). 2020년 5월 5일 기준. Bain의 SITREP 지수는 0에서 10까지이며 과학, 경제, 사회적 정보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

3) 보험 사고의 발생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가 긴 경우를 의미함

■ 손해보험 종목 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사이버보험과 의료배상책임보험 시장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임(그림 1) 참조)

- 원격근무로 인해 사이버 리스크가 증가하고, 이에 따른 사이버 보험 수요 증가는 사이버 보험의 성장을 가져올 것임
-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전문가의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의료과실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의료배상책임보험시장이 성장할 것임
- 재물보험(물리적 피해) 및 주택보험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임

〈그림 1〉 코로나19 사태의 보험 종목 영향



자료: Mckinsey(2020. 4), p. 4, p. 7의 표를 도식화 함

■ 이동제한, 도시봉쇄로 인해 자동차보험 및 여행자보험 시장의 보험료 규모가 감소하고, 실업률 증가로 근재보험시장 또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

-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은 새로운 자동차 구입자 및 보험가입자의 유입을 제한하고, 여행자보험의 수요 또한 감소시킬 것임
 - 자동차 운행이 감소하면서 사고율 또한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것임

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온라인쇼핑과 관련한 새로운 보험시장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임

- 재택근무, 이동제한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쇼핑 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 상거래 및 배달서비스에 대한 보험시장이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보임

■ 손해보험회사는 원격근무 및 디지털 환경을 정비하고, 보험증권의 보장범위 및 보험료를 조정하는 한편 미래의 리스크에 대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[kiri](#)